

“공포로 마비된 세상 단결시키는 건 음악”

리사차, 예술의 전당서 리사이틀 베토벤 소나타 전곡 녹음 진행중 “무대에선 노력·감정 모두 쏟아야”



발렌티나 리사차.

/오피스 제공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더는 숨을 곳이 없게 됐어요. 우리는 이미 공포로 마비된 상태죠. 제 연주자가 이 공포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사람들의 작은 몸짓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음악과 예술은 우리를 단결시키고, 정신을 고양시킵니다”

“피아노 검투사”·‘건반 위의 마녀’라는 수식어가 붙은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 발렌티나 리사차(47)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 속에도 22일 예술의전당에서 리사이틀을 강행했다. 항공편 취소와 투어 일정 변경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한국행을 고수한 것이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무명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팬들은 열성적으로 응원해줬죠.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을 저의 음악 세계로 초대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제가 느끼는 강력한 의무감 중 하나입니다.”

리사차는 화려한 기술과 넘치는 힘, 빠른 속도로 몰아치는 연주로 유명하다. 열정도 넘쳐 2013년과 2017년 내한 때 무

려 3시간에 걸친 리사이틀도 주목을 받았다. 정규 프로그램이 끝난 후 앙코르를 30분 넘게 받아 관객들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줬다.

“정중들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기꺼이 연주할 수 있죠. 앙코르곡을 미리 계획하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원한다면 느끼는 곡들을 즉석에서 연주하죠. 부드러운 곡일 수도 있고, 꿈꾸는 듯한 곡일 수도 있고, 때론 격렬하고 신나는 곡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내한 공연에서 그는 라흐마니

노프, 쇼팽, 리스트, 라벨 등을 선보였다. 이번에는 오로지 베토벤 피아노소나타만 30분 넘게 받아 관객들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줬다.

“템페스트”, 23번 ‘열정’, 29번 ‘함머클라비어’다.

“함머클라비어는 다른 규모가 큰 소나타에 견줘서도 배는 길어요. 교향곡으로 비교하자면, 베토벤 9번 ‘합창’과 같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머클라비어만 연주하는 것도 피아니스트에게는 큰 도전인데,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열정’과 서정적인 ‘템페스트’까지 연주해

야하죠.”

리사차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를 녹음 중이기도 하다. 현재 26, 28, 31, 32번을 제외한 나머지 녹음은 마친 상태다. 녹음하기 전 영향을 받은 연주자는 있을까? 그가 좋아하는 베토벤 연주자는 누구일까?

“베토벤 소나타를 전곡 연주한 사람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른 사람들보다 더 적어요. 그중에 빌헬름 바흐하우스(1884~1969) 연주를 좋아합니다. 초기에 진행한 모노 앨범을 특히 좋아하죠. 아르투르 슈나벨(1882~1951)은 더욱 좋아합니다. 그는 베토벤 해석의 권위자였죠. 당시 녹음 기술이 부족해 음질은 현대 녹음과 비교해 떨어지지만 말이죠. 깨끗한 음질을 듣는데 익숙한 현대 음악 팬들은 감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리사차는 미국에 거처를 두고 있지만, 연주와 녹음을 위해 주로 유럽에서 지낸다. 최근 수년간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살았으며 현재는 녹음 작업 때문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평상시 8~12시간 정도 연습한다고 한다.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해요. 좋은 연주자가 되려면 우선 작곡가들이 남긴 악보와 원고를 철저히 연구해서 연주의 실마리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친 연습을 거친 후 무대에 올라야 하죠. 무대에선 걱정과 공포 같은 삶의 부스스거리를 잠시 접어둔 채 곡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감정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죠.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무척이나 보람찬 일이기도 합니다.” /연합뉴스

심은경, 日 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

‘블루 아워’ 올 상반기 국내 개봉



배우 심은경(사진)이 일본 영화 ‘블루 아워’로 일본 다카사키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영화 수입사 오드네 영화 ‘블루 아워’의 주연 배우 심은경과 카호가 지난 22일 일본 군마현에서 열린 지역영화제인 제34회 다카사키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블루아워’는 광고디렉터로 일하는 스나다가 할머니 병문안을 위해 친구 키오우라와 고향으로 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로 심은경이 키오우라를, 카호가 스나다를 연기했다.

심은경은 “키오우라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가며 감독님과 함께 만들어 낸 캐릭터라 배우 역할이 깊었다”며 “카호와 함

께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심은경은 앞서 지난 6일 열린 제43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신문기자’로 한국 여배우 최초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블루 아워’는 올 상반기 국내 개봉한다. /연합뉴스

“인간병기들의 아픔 담았어요”

최진혁, OCN 새 주말극 ‘루갈’ 제작발표회



배우 최진혁.

/OCN 제공

“액션이 많아 특히나 남성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합니다.”

배우 최진혁(34)은 23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OCN 새 주말극 ‘루갈’을 이치럼 설명했다.

‘루갈’은 한자 ‘癩瘡’, ‘눈물이 마르다’는 뜻으로 극 중 생명공학 기술로 특수능력을 얻은 인간병기들이 모인 특수조직의 이름이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SF 액션극으로 루갈과 테라집단 ‘아르고스’의 대결을 그린다.

최진혁은 “아픔을 겪고 인간병기로 다시 태어난 인물들의 성장과 아픔이 있고, 블랙코미디 같은 요소도 있고, 인간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매력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맡은 전직 형사 강기범에 대해 “정의로움과 복수심이 매력적인 것 같다”며 “아르고스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루갈팀과 합류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각각 사건들이 강기범 팀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웹툰에는 강기범이라는 인물이 명확하지 않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며 “위트도 있고 절절결절하면서 인간적인 면과 아픔,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는 사람이면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싶었다”라고 원작과 드라마의 캐릭터 차이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대 테라집단 아르고스의 실세이자 절대 악 황득구 역을 맡은 배우 박성웅(47)은 “어떻게 다르게, 여태까지 기준에 나온 악당보다 더 세고 악하게 나올 수 있을지가 숙제였다”며 “그냥 제정신이 아니면 되더라. 배우들은 준비해가도 현장 분위기나 몸 상태에 따라 좌우가 되는데 황득구는 현장에서 120%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연출을 맡은 강철우 감독은 “웹툰의 장르인 SF를 어느 만큼 표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진짜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충실히 연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새로운 그림, 신선한 사운드, 다른 드라마와 차별화되는 엄청난 컴퓨터그래픽(CG)과 액션 장면들이 시청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라 예고했다.

오는 28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 /연합뉴스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BTS 코로나 극복 응원 메시지 다음 응원 주자로 손흥민 지목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3일 공식 유튜브 채널과 ‘리브 마이셀프’ 캠페인 트위터 계정 등지에 ‘방탄소년단 코로나19 국민 응원 메시지’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20일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장교들이 국방부 SNS에 올린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 영상에서 “방탄소년단이 릴레이 응원 메시지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 달라”고 요청한 것에 응답한 것이다.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진은 “요즘 익숙했던 매일매일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또 관객이 텅 빈 무대에 서며 여러분과 한 공간에서 호흡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지민은 “우리는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만큼 아주 가까이 연결돼 있다”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그 연결의 힘이 이 시

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국은 “불안보다는 믿음이 분노보다는 위트가 필요한 때”라며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뷔는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

겠다”고 했고 리더 아영 역시 “다시 찾아올 일상을 기다리며 저희는 저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제이홉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실 간호장교 여러분과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함께 손을 모으고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을 힘차게 외쳤다.

이들은 “다음은 대한민국 축구계에 새 기록과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월드컵 선수, 저희 응원을 이어달라”며 다음 릴레이 응원 주자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을 지목했다. /연합뉴스

최강창민 첫 솔로 앨범 ‘초콜릿’ 내달 6일 발매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본명 심창민·32)이 데뷔 후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최강창민이 첫 번째 미니앨범 ‘초콜릿’ (Chocolate)을 다음 달 6일 발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앨범과 동명 타이틀곡 ‘초콜릿’을 비롯해 다채로운 장르 6곡이 수록된다.

최강창민은 그동안 ‘해븐스 데이’ (Heaven's Day), ‘라이즈 애즈 윈’ (Rise As One), ‘어폴로지’ (Apology), 드라마 OST 등 다수 솔로곡을 발표했고 작사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최강창민 미니 1집 ‘초콜릿’은 지난 23일부터는 ·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도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최강창민은 2004년 5인조 동방신기로 가요계에 데뷔해 아시아 전역에서 최고의 인기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는 유노윤호와 2인조 재팬한 동방신기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3월 25일 (음력 3월 2일)



48년생 일이 쪼이고 몸도 불편하다. 60년생 고집을 접고 마음을 열어라. 72년생 대화와 타협으로 살길을 모색하라. 84년생 단순하게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



49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 61년생 위험한 유혹의 손길을 조심하라. 73년생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85년생 솔로는 결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50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62년생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74년생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 86년생 생각이 행동하면 후회한다.



51년생 사랑과 용서야 필요하다. 63년생 콩심는데 콩나고 팔심는데 팔난다. 75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87년생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52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오해가 생긴다. 64년생 첫인상에 속지 말라. 76년생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있다. 88년생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41년생 이미 정해진 일에 미련을 두지 말라. 53년생 공돈이 생기겠다. 65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77년생 일단 목표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42년생 편안한 하루를 마음껏 즐겨라. 54년생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한다. 66년생 올바른 인행은 구설수를 예방한다. 78년생 근심거리가 해결되니 살맛난다.



43년생 소인배의 이간질에 넘어가선 안 된다. 55년생 희망과 행복이 넘쳐 난다. 67년생 지나친 자랑은 오해를 부른다. 79년생 추추고 노래하는 날이다.



44년생 피는 물보다 진하다. 56년생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68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뚫린다. 80년생 더 이상의 안타까운 방향은 없어야 한다.



45년생 과거는 잊고 새 출발하라. 57년생 노력에 비해 결실이 적다. 69년생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81년생 충분한 휴식이 더 유익할 때도 있다.



46년생 기대만큼 만족스럽다. 58년생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0년생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82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47년생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59년생 업무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다. 71년생 금전문제도 다소 속상할 일이 있다. 83년생 겸손한 자에게는 적이 없다.